

대행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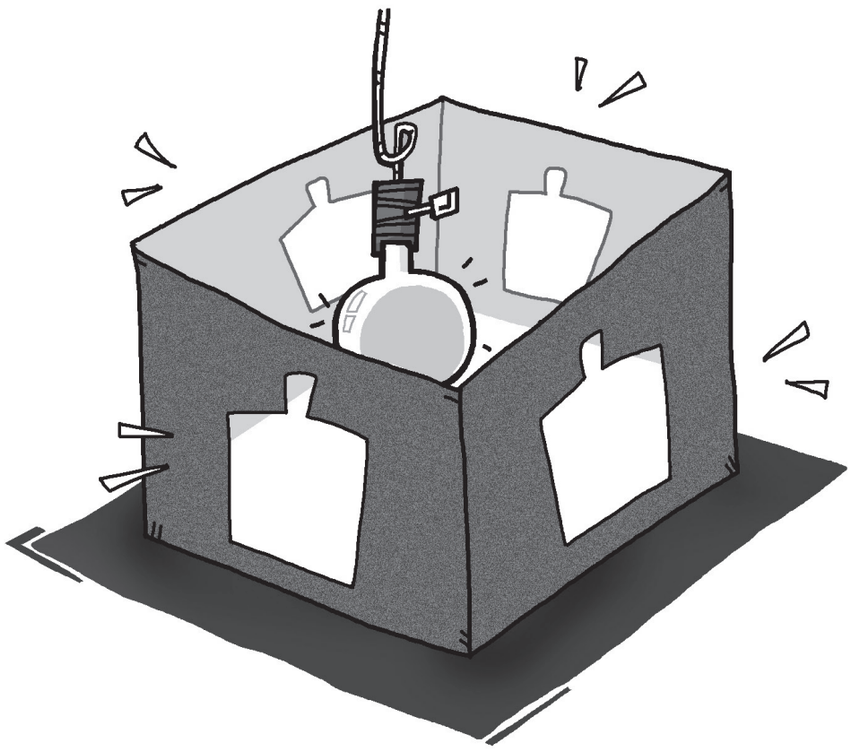
자기의 모든것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유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

여러분 앞에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일거삼득으로서, 예전에 무(無)의 법, 유(有)의 법 이것을 따로따로 배우면서 나중에 무루와 유루를 한데 합쳐서 법화경으로 설했던 부처님의 그 뜻을 가만히 여러분이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유의 법과 마음의 무의 법 그걸 합쳐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생활이 어떠한 것인가? 그 생활 자체가 바로 법화경이라, 응? 그러니 이거를 공간을 두고, 이게 마디는 있으나 속에 통하는 것은, 각각 이게 막아져 있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통해져 있으면서 거죽으로 이름만 마디가 세 매듭이 있는 거나 똑같은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심에 들게 한다면" 하는 요것이 마디만 있다 뿐이지 한데 통해서 한 일 자로 본다면 그냥 일심이야, 일심. 모든 것이, 삼계의 뜻이 일심에 들었다 이 소리야.

거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어저께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나는 여러분에게 10년 20년 30년이 가깝도록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생활면이나 몸을 끌고 다니는 건강면이나 또는 가정 문제라든가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이 활용을 하고 다니는데 그것은 첫째, 참선이 될 것이며 자기를 찾을 것이며 둘째, 그대로 활용이 그대로 여여함이라는 거, 그러면 그대로 공덕이 된다는 거. 이것이 철저하게 그대로 참선이요, 그대로 우리 생활이 여여함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답답하니까 말 자체, 악센트가 곱게 나가지 않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저께 얘기한 것은 이 꼭지가, 이게 문이라고 해요, 사람마다. 항상 이런 말을 하지만, 우리가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안에도 꼭지가 있고 바깥에도 꼭지가 있는데 이건 한데 통했어, 막히질 않고. 이것이 막히질 않았기 때문에 바깥에서 열어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안에서 열어도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된다면 열고 나갈 수도 없어, 막혀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관문을 열어도 그렇고 방문을 열어도 그렇고 양면이 다 통해 있어서 연다. 그래서 안에서 바깥으로 굴리는 거는 안에서 그걸 열어야만 되는 거고, 바깥에서 찰나찰나 보이는 것을, '버릴 거는 버린다' 이러는 것이 뭐냐 하면 찰나찰나 보이는 것에서 내가 쓸 만한 거를 건져서, 예를 들어서 흘려 버릴 건 흘려 버리고 '이건 이렇게 옳다' 할 때는 벌써 여기 문을 누르는 거나 마찬가지야. 안으로 놓는 거야, 이게. 이게 잠재해 있는 내 원자력 발전소에다가 바로 굴리는 법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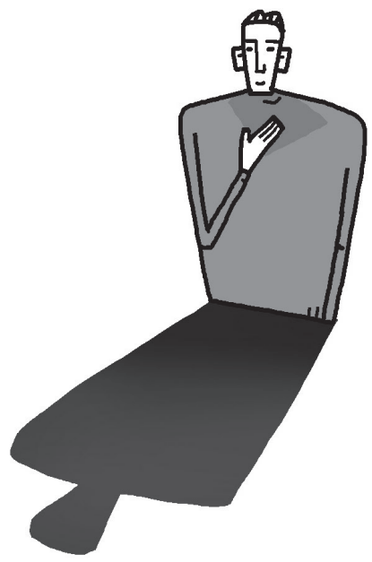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면 물도 우리가 약물이다 한다면 맹물과 어떠한 물건과, 만약에 삼과 대추를 가공해서 졸인다면 이건 삼물이 돼 버려, 응?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 물도 곱게 물대로만 있는 게 아니야. 만약에 여기서 가공만 한다면 이것이 삼물이 될 수도 있고 가공을 안 하면 그냥 맹물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 맹물을, 즉 에너지가 있게끔 에너지로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라.

이것은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합해서 내가 활용하는 데에 의의가 있는 거지. 그렇게 활용하면서도 자기가 침착하게 지켜보는, 자기가 해 놓고 자기를 침착하게 보는 그러한 물러서지 않는 믿음, 그거를 갖는다면 우리는 참 빠르게 공부할 수 있다. 빠르게 나를 발견할 수 있고, 발견함으로써 직접 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애가 태어나면 자라야 하지마는 이것은 발 하나 떼어 놓으면서 벌써 내가 이 포착을 했으니까 아주 용이 됐으면 물 얻기가 십중팔구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했듯이, 지능이 발달이 되면 결국은 지능으로 인해서 물리가 터지고, 물리로 인해서 지혜로운 그 일체 만법을 그냥 활용할 수 있다. 이 지혜로운 것은 내 폭이 넓고 그 마음의 지혜가 무기가 돼서 그대로 씀씀이를 쓰는 것이니 찰나찰나 닥치는 거를 마다 않고, 가는 거 잡지 않고 이러면서 내가 유유히 써 나가는 거, 그대로. 그런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여여함이라고 그러고 걸림이 없다고 그러고, 자유인이라고 그러고 부처라 그러고 보살이라고 그러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역대 조사의 그 마음도 역대 부처의, 사대 성인들의 마음도 모든 것이 그 차원에 따라서 차원이 낮고 높고 이것뿐이지 생명은 다 똑같은 거라. 생명은 다 똑같은데 이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차원이 낮은 거라. 낮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하는 거지. 생명은 누구나가 다 똑같은 거지.

그래서 불성이 하다못해 개에게도 있다 하는 거는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얘기지.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품으로 인해서 육신이 움죽거리고 말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것을 요렇게 놓고서 우리가 이 안팎이 없는 보당이 여기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보당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바깥에서 오관을 통해서 들어온 것을 여기서 안으로 굴리고, 안에서 바깥으로 내놓을 때는 안의 보당이 눌러지는 거야, 자동적으로, 그건.

그렇게 된다면 이 줄이 벌써 인간의 몸에도 척추에 있는 이쪽으로나 심장 이쪽, 오장육부 이쪽으로는 이 세포가 둥글게, 즉 말하자면 고구마같이 그렇게 된다고나 할까? 그러한 모형으로다가 이것이 법망이 쳐져 있지마는 그런 게 아니라면 딴 데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어떠한 그것을 막지 못해요. 그것이 법망이라, 우리한테도.

그러면 다른 세포에 있는 건 엑스로써 삼각형을 이루면서 이것이 세포가 나간 거거든. 그것은 왜 그런가? 모든 면에 있어서 영계라든가 또는 무위에서 안 보이는 문제들, 유전성이나 또는 인과응보라는 거나 이러한 모든 문제를,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세포라. 여기는 울타리나 똑같아. 그런데 울타리는 그냥 부수면 부서질 텐데 울타리 아닌 울타리라. 즉 말하자면 무의 통신기를 여기에다가 다 접근시켜 놓고 전자력도 여기에 다 있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마는 다 막고 있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 공중에 수많은 생명들이, 보이지 않는 생명들이 많아도 그걸 제재하고 나가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이 도리를 모른다면 딴 데서 어떠한 영계가 들어오든 딴 데서 깨친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한번 때려도 그걸 막지를 못하는 거야. 주인이 없기 때문이라. 빈집이 돼서.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해도 도대체 이거는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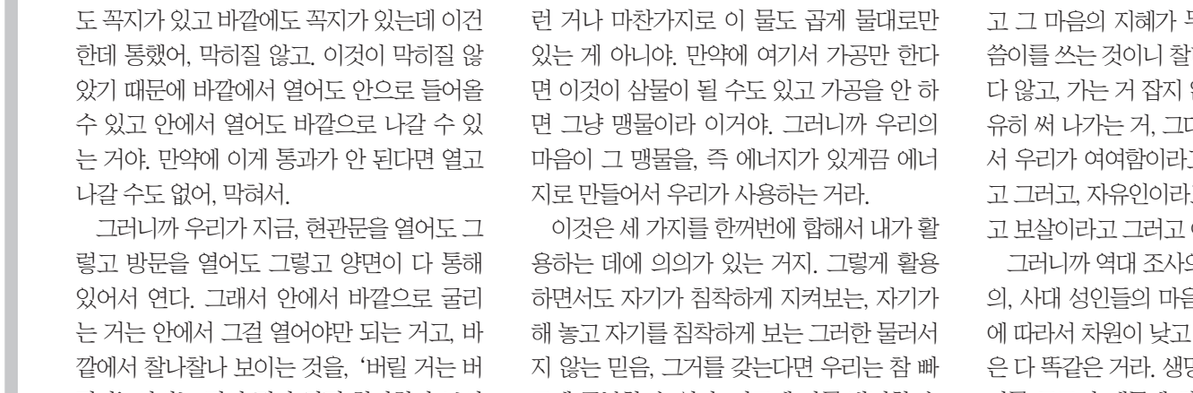
이것은 본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지 누가 새삼스럽게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안팎이 뚫린 이 빗장은 양면이 다 빗장이 있는 거야, 고리가 있듯이. 그런데 맞뚫렸어, 이게. 그런데 이게 둘이 아닌데 우리가 안에서 열려니 이쪽에도 있어야 하고, 바깥에서 열려니 이쪽에도 있어야 하겠기 때문에 이거는 한쪽은 색이요, 한쪽은 무루의 나, 내놓을 게 없는 '참나'라.

그렇다면 '참나'로부터 '가나[假我]'로다가 이렇게 가르치려고 내보내고 또 '가나'가 안으로 '참나'에게 들이고 하는 것을 항상 반복한다면 거기에서 진짜 나오는 거라. 그래서 무루에서 유루를 가르치고 유루에서 무루를, 즉 말하자면 섬기면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말이 있듯이 섬기면서 거기서 스승으로 삼고 배우는 거라, 응? 왜 스승으로 삼아야 하느냐 하면 자기의 안에 있는 참자기는 수없는 억겁을 통해서 자기를 이끌어 왔다 이거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참자기이기 때문에 수많은 참자기와는 항상 한자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이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줄이, 내가 어저께 얘기했듯이 요것을 자세히 파악해야 하는데, 이건 내가 자세히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벽을 치면 봇장이 울려야 해. 여기에는 수많은 법 줄이, 이 무전통신 줄이 이렇게 있다 이거야. 무전통신 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전자력과

☞ 18면으로 계속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가정집

A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Q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 서울·경기 02-456-8831 · 충 청 도 010-6545-3350 · 전 라 도 011-248-6298
· 강 원 도 019-396-1110 · 경 상 도 010-4187-00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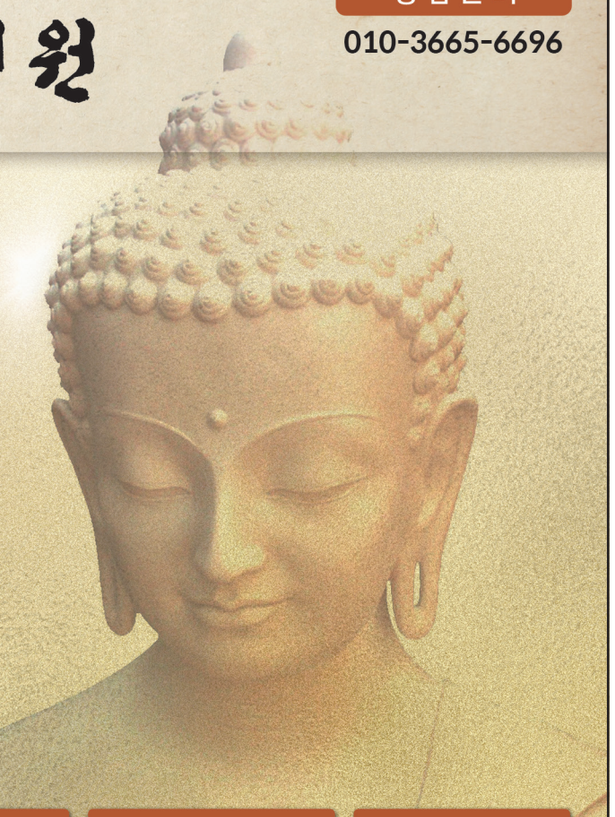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부처님의 마음을 빚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